

한국의 고대악무 연구를 위한 일본의 궁중 악무 고찰

: 일본 고구려계 악무 <고마료(狛龍)>의 재구성 및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박태규 _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문헌 기록을 통해 본 <고마료>의 성격 및 공연 양상
- III. <고마료>의 재구성 현황 및 현안 과제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마료(狛龍)>를 중심으로 그것의 문헌 기록 및 춤 재구성 작업 현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교훈초』에 의하면 <고마료>는 고마가타(馬形)에 올라 춤을 추었다고 한다. <고마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고마가타이다. 고마가타는 조형의 말로, 용마를 상징한다. <고마료>에서 용마는 그것의 외형적 측면 및 공연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덴리대학(天里大学)에서 재구성한 <고마료>는 2인무로 용의 형상을 본 뜬 의상에 무구로는 은색 봉과 여의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반면, 문헌에 보이는 고마가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덴리대학의 <고마료> 재구성은 여러 면에서 보완, 수정, 재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덴리대학에서 전승이 단절된 작품의 재구성 등을 시도하는 것은 연구가 아닌 지금까지 공연되지 못한 악곡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1040726)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래되어 온 가가쿠(雅樂)의 역사성 및 의의 등을 생각할 때, 재구성 등에서는 공연의 가(可), 불(不) 만이 아닌 문헌 기록의 실체적 접근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확장된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고마료> 재구성 작업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고구려, 고마료(狛龍), 고마가타(馬形), 고마가쿠(高麗樂), 부가쿠(舞樂)

1.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구려계 악무 중 <고마료(狛龍)>를 중심으로 첫째, 그것의 문헌기록과 악곡의 특징에 관해 고찰하고, 둘째, 오늘날의 춤 재구성 작업 및 현안 과제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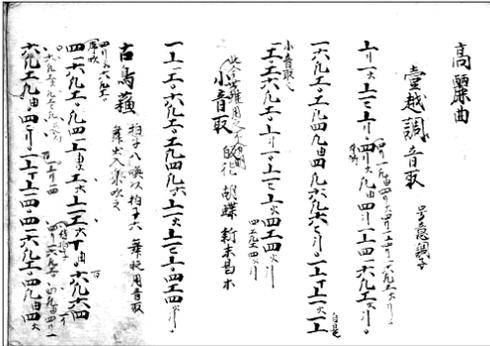
일본의 부가쿠(舞樂) 중 고구려계 악무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다이소토쿠(退宿徳)>와 <신소토쿠(進宿徳)>, <고마보코(狛鏝)> 외에 <고마이누(狛犬)>, <고마료(狛龍)>, <깃칸(桔槔)>의 6개 악곡이다. 이들 중 <다이소토쿠>와 <신소토쿠>, <고마보코>의 세 악곡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에 반해, <고마이누>, <고마료>, <깃칸>은 중고에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에 들어 <고마이누>와 <고마료>의 복원 및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져, 음악이 복원된 <고마이누>는 가가쿠(雅樂) 단체인 레이가쿠샤(伶樂舎) 등에 의해 빈번히 공연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고악(古樂)의 복원이나 혹은 재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궁내청(宮内庁) 악부(樂部)와 국립극장을 들 수 있다. 궁내청 악부는 일본의 궁중악무를 보존 전승하고 있는 최고 권위의 기관으로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복원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반해 국립극장은 1966년 개장한 이래, 일본의 궁중 및 의례

www.kci.go.kr

음악을 중요 공연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복원된 곡목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고마이누> 또한 이러한 국립극장을 통해 복원된 것인데, 당시 복원을 주도한 것은 2019년 작고한 시바 스케야스(芝祐靖)였다. 그는 <고마이누>의 춤사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회중보(懷中譜)』를 기본으로 1978년 그것의 음악을 복원하였다. 반면, <고마료(狛龍)>는 음악과 춤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고마료>의 재구성 작업 등을 진행한 것은 덴리대학(天理大学) 가가쿠부(雅楽部)이다.¹⁾ 물론 국립극장과 덴리대학 가가쿠부의 복원 작업을 동일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덴리대학의 가가쿠부는 학생들에 의한 일종의 동아리활동으로서, 전문가들에 의한 국립극장의 그것과는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쿠부의 <고마료> 작업에 관해 살펴보면, 본 대학의 사토 고지(佐藤浩可) 교수는 2014년 <想思千十三年源氏物語XIV>에서 <고마료>의 음악과 춤의 재구성을 시도하여 공연하였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재구성이란 문헌 및 고악보를 기본으로 하되 창작의 개념이 가미된 것을 의미한다. 덴리대학교 가가쿠부의 사토 고지 교수에 의하면 <고마료> 작업에 있어 히치리키(箏箏)의 정확한 악보를 찾기가 힘들어 일부 창작을 가미하였고 춤 또한 고마가쿠의 기본 동작을 이용해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²⁾ 『용명초(龍鳴抄)』에는 <고마료>와 관련해 「しりたる人なし、かくすべき物なり」³⁾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용명초』가 기록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후기 <고마료>는 비곡(祕曲)으로 그것에

-
- 1) 재구성된 <고마료(狛龍)>는 2014년 10월 25일 덴리(天理)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15일 히로시마(広島), 2월 22일 도쿄(東京), 3월 7일 오사카(大阪)에서 공연된 바 있다.
 - 2)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2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온라인 및 天理 방문을 통해 佐藤浩可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 3) 神宮司庁, 『古事類苑』34, 吉川弘文館, 1909, p.592.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덴리대학 가가쿠부는 이러한 <고마료>의 부활을 시도한 것인데, 2014년 공연된 <고마료>는 2인무로 푸른 색 의상에 머리에는 용의 형상을 한 관을 쓰고 무구로는 여의주와 은색 봉을 사용하였다.



『懷中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원이나 혹은 재구성 작업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것은 고악보를 비롯한 관련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위의 『회중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고악보의 기보법

(記譜法)은 일종의 기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법의 전승이 단절된 후에는 연주자나 혹은 학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춤의 복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마가쿠는 총 38개 종목이다. 그런데 현재 『메이지선정보(明治撰定譜)』에 무보(舞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신토리소(新鳥蘇)>와 <고토리소(古鳥蘇)>를 포함해 25곡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메이지선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나머지 곡들은 완전히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고마료>는 그런 가운데 재구성이 시도된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덴리대학 가가쿠부에서 재구성한 <고마료>는 어떠한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이하, 본고에서는 <고마료>를 중심으로 그것의 문헌 기록 및 춤 재구성

작업 현황에 관해 살피고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등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문헌 기록을 통해 본 <고마료>의 성격 및 공연 양상

<고마료>에 관해 기록해 놓은 문헌으로는 『교훈초(敎訓抄)』와 『악가록(樂家錄)』, 『용명초』 외에 『중우기(中右記)』, 『습개초(拾芥抄)』, 『어당관백기(御堂関白記)』, 『영화물어(榮花物語)』, 『침초자(枕草子)』, 『잡비별록(雜秘別抄)』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마료>의 음악, 의상, 무구, 번무(番舞), 함축적 의미 및 성격, 공연 환경, 양상 등에 관해 기술해 놓은 자료들을 일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龍鳴抄』, 『上狛樂』
高麗禮龍こまらうといふ⁴⁾

『中右記』

康和四年閏五月十五日、巳時許諸御參入、依可有競馬卿覽也。奇御輿於寢殿(中略)龍頭鷓首兩船、奏蘇芳菲樂(左右共同樂船差童部)、於東假橋東頭、蘇芳菲、狛龍且舞且行、狛龍(世號駒形)并左右乘尻等、參向於馬場西頭(以下省略)⁵⁾

4) 神宮司庁, 『古事類苑』34, 吉川弘文館, 1909, p.592. 고마료라고 한다.

5) 藤原宗忠 著, 笹川種郎 編, 『中右記』2, 日本史籍保存会, 1916, p.184.

고와(康和) 4년(1102) 윤 5월 15일 사각(巳時, 오전9-11시) 무렵 경마 어람이 있어 여러 경들이 궁중으로 들어갔다. 어가를 침전에 보냈다. (중략)용두와 익수(龍頭鷓首)의 두 배에서는 소호비를 연주했다. 좌우에서 함께 연주하는데 노로 짓는 배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있다. 동쪽 가교의 동쪽 머리에서 소호비와 고마료를 춤을 추고 나아간다. 고마료를 세상에서는 고마가타(駒形)라고 불렀는데, 좌우경마의 기수 등이 마장의 서쪽 끝으로 나아갔다.(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無舞曲』

又高禮龍云。破拍子十二。急拍子十二、又八。件舞、五月節二輿出入之間、於御前奏之。乘小馬形二人舞之。冠蠻繪着 (중략) 古記云、此曲者、向御輿筋替ヲ打テ舞フ也。(중략) 狛樂ノ中ニハ秘樂ノ隨一ナリ。⁶⁾

일월조(一越調)에 속하는 <고마료>는 『용명초』나 혹은 『교훈초』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려례룡(高麗禮龍)’, ‘고례룡(高禮龍)’ 등으로 쓰기도 하며, 파(破) 박자 12, 급(急) 박자 12 또는 8이라고 한다. 공연은 머리에 관을 쓰고 반에(蠻繪) 내지는 특별의상을 입은 무원 2명이 고마가타(小馬形, 駒形)라고 하는 조형 말위에 올라 춤을 추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춤동작에는 특히 스지가에(筋替)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중우기』에 의하면 <고마료>는 보통 <고마가타>라고 불렀는데, 고와(康和) 4년(1102) 윤 5월 15일 기사에는 ‘고마료 세간에서는 고마가타라고 부른다(狛龍世號駒形)’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고마료>가 연행된 것은 5월의 경마 어람 때로, 당시 천황이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연행되었으며 특히 번무로는 <소호비(蘇芳菲)>가 연행되었다. ‘소방비’는 상상의 동물로서 몸은 사자, 얼굴은 견두(犬頭)를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표면상 <고마료>에는 용이, 그리고 <소호비>에는 소방비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은 천황

6) 林屋辰三郎 校注, 『教訓抄』, 岩波書店, 1973, p.106.

또 ‘高禮龍’라고 한다. 파(破) 박자 12. 급(急) 박자 12 또는 8. 그 춤, 5월 절회 당시 어가(御駕)가 출입하는 동안 그것의 앞에서 연주한다. 조형 말(小馬形)에 올라 두 사람이 춤을 춘다. 관(冠)에 반에(蠻繪) 의상을 입는다. (중략)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이것을 연행하는 자는 어가를 향해 스지가에(筋替)의 춤동작으로 춤을 춘다. (중략) 고마가쿠(高麗) 중에서 비곡(祕曲)의 제일(第一)이다.

7) 박태규, 『일본 고대의 한류와 그 특이성』, 『역사 속의 한류』, 역락, 2021,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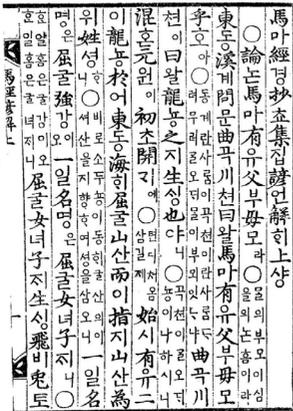
의 행차에 따른 액막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의 인용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교훈초』에 고마가쿠 중 비곡(秘曲)의 제일이라고 기록되는 등, 오늘날 전승이 단절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고마료>가 왜, 언제부터 전승이 단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우기』에 1102년(康和4) <고마료>가 공연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12세기 초까지는 전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마료>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고마가타이다. 일반적으로 ‘고마료’라고 하면 ‘고마+료’, 즉 ‘高麗+龍’으로 이해되어 ‘한반도의 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훈초』에 ‘조형 말에 올라 두 사람이 춤을 춘다’고 되어 있고, 『중우기』에 ‘狛龍世號駒形’, 즉, ‘고마료를 세간에서는 고마가타라고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마료=고마가타’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고마가타란 언급한 바와 같이 조형의 말이다. 그렇다면 <고마료>에는 왜 조형의 말, 즉 고마가타가 등장하는 것일까? 또한 당시 사람들은 고마료를 왜 고마가타라고 부른 것일까? 무구로 고마가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고마료>에 등장하는 조형의 말, 즉 고마가타는 ‘용’과 결합한 이른바 ‘용마’로서 단순한 무구가 아닌 춤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원래 ‘용’과 ‘말’은 공통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은 사영수(四靈獸) 중의 하나로 비(雨)와 바다를 관장하는 것으로 숭앙되어 왔다. 그런데 말 또한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여러 건국 신화에 등장하며 승천영가(昇天靈駕) 사상을 형성하였다. 일례로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말은 고주몽에게 젖을 먹이는 등 그를 키워준 존재로 등장한다.⁸⁾

8) 이시영, 『한국마문화발달사』, 한국마사회, 1991, p.63.

게다가 『삼국유사』(권1) 「기이편」의 신라 건국신화에서는 장차 박혁거세가 태어나게 될 알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린 후 하늘로 사라지는 천마로 등장하기도 한다.⁹⁾ 말이 이렇듯 여러 건국신화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영계와 인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에 있어 말은 단순한 동물이나 가축이 아닌 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용과 말이 만나 용마사상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시영의 『한국마문화발달사』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말의 조상’이 ‘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¹⁰⁾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듯이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논마유부모(論馬有父母)」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馬經抄集諺解』

東東溪계問曲곡川천曰曰馬마有有父父
 부부모모호호아아 동동계계란란사사룸이곡곡천이란사
 룸드러무러굴오디물이부뫼잇느냐○曲곡
 川천이曰曰龍龍농농之지生生싱也야니○곡곡천이
 굴오디농이나하시니○混混元元원이初初소開
 기에○턴디처음삼길제○始시有有유二이龍
 농농於어東東동海海히屈屈굴山山산而이指지山山爲
 위姓姓성호니○비로소두농이동히굴산의이
 셔산을지향호여성을삼오니○一일名명은
 屈屈굴女녀子子지니○혼일흙은굴강이호일
 흙은굴녀지니○屈屈굴女녀子子지生生싱飛飛비
 兔兔토호고○굴녀지느는튼기놀났코○飛飛비
 兔兔토호고○굴녀지느는튼기놀났코○飛飛비

토生生싱麒麒기麟麟인호고○나는튼기기닌을났코○麒麒기麟麟인이生生싱馬馬마호니○기
 닌이몰을나호니○天天천皇皇황이名명曰曰龍龍농駒駒구러니○천황이일흙을농귀라

9) 일연 저, 최호 역해, 『삼국유사』, 흥신문화사, 1999, p.41 참조.

10) 이시영, 앞의 글, p.63

호여더니○後후因인食식인인호여○후의사름을물어머금을인호여○董동仲
 등仙선이摘덕其기膽담汁즙호니○동등선이란사름이물뜰게즙을짜부리니○
 息식其기踏테鬣설이어늘○그츨기과물기늘고치거늘○更징名명日日알馬마也
 야라하니라○일흠을곳터굴오디물이라호니라.¹¹⁾

『마경초집언해』는 17세기경에 간행된 일종의 말 수의학서로 상하권의 2책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상권의 첫머리에 「논마유부모」가 실려 있어, 이
 것에 의하면 동계가 곡천에게 말의 부모가 있느냐고 묻자 곡천이 대답하기를
 용의 자식이다라고 하였다. 이 세상이 처음 열릴 때 동해에 두 마리의 용이
 살았는데, 수컷은 굴강이고 암컷은 굴여자였다. 굴여자는 비토(飛兔)를 낳았
 고 비토는 기린을 낳았고 기린은 말을 낳아 천황이 용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사람을 차고 물어서 동중선이라는 사람이 그의 쓸개를 빼어버리자 물
 고 차는 일이 없어져 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용과 말은 하나의 계통으로 동일한 신적 존재
 라는 것인데, 용과 말이 결합한 용마사상은 곧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마와 관련해 일
 본의 『延喜式』二一(927)에는 「祥瑞<略>神馬 龍馬長頸、
 額上有翼、踏水不沒」¹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상서(略)
 신마. 용마 목이 길어 이마가 위에 있고 날개가 있는데,
 물위를 걸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 용마는 몸에 날개가 달린 신적인 존재로 상서로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마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뿔이 나 있거나 혹은 몸에 비늘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正倉院 金薄繪馬頭

11)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LIB_195666
 (검색일: 2023. 01. 03)

12) 現代思潮神社, 『延喜式』2, 現代思潮神社, 2006, p.172.

한편, 쇼소인(正倉院)에는 「금박회마두(金薄絵馬頭)¹³⁾」라고 하여 〈고마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말의 두상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머리에 무엇인가를 붙였을 때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못이 박혀있다. 이것에 대해 다쿠와 사토시(田鍬智志)는 말머리의 못은 곧 뿔을 붙이기 위한 용도였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¹⁴⁾ 그런데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은 곧 용마가 된다. 일본에서 용마의 모습은 〈연중행사회권(年中行事繪卷)〉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¹⁵⁾ 〈연중행사회권〉은 헤이안 시대 궁중의 의식이나 법회, 민간의 종교 풍습 등, 연중 행사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 자료이다. 그 중 제1권 「조근행행출발(朝覲行幸の出発)」에는 천황의 행차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는 말과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말들의 머리에 씌워진 장신구로, 가면처럼 생긴 장신구로 인해 말들은 모두 마치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마료〉에서 이 용마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용’과 ‘용마’의 차이는 그것의 복원이나 재구성 등에서 그것의 외형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구성이 진행된 〈고마료〉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와 외형으로 무대화 된 것일까? 이하에서는 이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사진은 奈良国立博物館홈페이지에 의함. https://www.narahaku.go.jp/exhibition/special/200910_shosoin (검색일: 2023. 01.03)

14) 田鍬智志, 「競馬節會幸行の舞樂〈蘇芳菲〉〈狛龍〉から因幡の麒麟獅子舞へ(1)」『日本伝統音楽研究』, 京都市立芸術大学日本伝統音楽研究センター, 2020, p.132.

15) 〈연중행사회권〉의 뿔이 달린 말에 관해서는 田鍬智志, 앞의 글, pp.129~136에 의함.

Ⅲ. 〈고마료〉의 재구성 현황 및 현안 과제

사토 고지(佐藤活司) 교수에 의하면 〈고마료〉는 2014년 봄 가가쿠부 내에서 〈고마료〉의 재구성안이 가결된 이후, 작업을 거쳐 가을에 춤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고마료〉의 재구성 작업을 시작한 것은 가가쿠부에서 지속적으로 『원씨물어(源氏物語)』를 테마로 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원씨물어』에는 〈고마료〉라고 하는 곡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십절기(十節記)』를 인용한 『공사근원(公事根源)』에 「天には白龍あり、地には白馬あり。又天の用は龍なり、地の用は馬なり」¹⁶⁾라는 기록이 나온다. 즉, ‘하늘에는 백룡이 있고 땅에는 백마가 있다. 또한 하늘에서는 용을 쓰고, 땅에서는 말을 쓴다’는 것이다. 『공사근원』은 이치조 가네요시(一条兼良, 1402-1481)가 저술한 유직고실서(有職故実書)로, 궁중 행사에 관한 기원이나 유래, 내용, 특색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가가쿠부에서는 『원씨물어』 당시에도 〈고마료〉가 연주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그것의 재구성 내지는 복원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사근원』의 기록은 백마절회(白馬節會)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마절회에는 1월 7일 천황이 백마를 관람한 후 연회를 베푸는 궁중의 절기 행사로 백마는 재액을 물리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마료〉가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덴리대학 가가쿠부의 춤 재구성 작업 또한 용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초연 당시의 프로그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웅장한 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당시 재구성된 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rmda.kulib.kyoto-u.ac.jp> (검색일: 2023. 01. 03)

도입부



준비 자세에서 음악이 시작되면 오른팔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테루, 아와스테, 쓰쿠, 다시 방향을 돌려 아와스테 동작을 한다.



한 방향을 보고 오시아시, 아와스테 등의 동작을 한 후 몸을 낮추어 정면을 향한다.

当曲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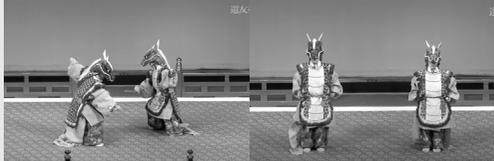
정면을 향해, 다테루, 요루, 아와스테를 한 후 도부, 오도루 동작을 한다.



서로 등을 돌린 후 미루, 하시리유키 동작을 하며 다시 마주본 후 오도루 동작을 한다.



각각 오른 쪽 팔을 높이 들고 방향을 바꿔 등을 댄 후, 쓰쿠 동작을 한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 마주 본다.

<p>当曲舞</p>	
	<p>몸을 낮추며 사스 동작을 하고 손을 뺀고 다테루, 후무, 오도루 동작을 한다.</p> 
	<p>몸을 숙여 팔을 앞으로 모은 후 다시 정면을 향한다</p> 
<p>퇴장</p>	<p>쓰쿠를 한 후, 방향을 돌려 뒤로 돌아 본다.</p> 
	<p>다시 정면을 향해 쓰쿠, 다테루 동작을 한다.</p> 
	<p>퇴장을 위해 정면을 등지고 쓰쿠, 아와스테, 다테루, 요루 등의 동작을 한 후 퇴장한다.</p>

이상과 같이 덴리대학에서 선보인 <고마료>는 2인무로 푸른색 의상을 입고 있다.¹⁷⁾ 더불어서 춤사위는 양팔을 크고 힘차게 벌리고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등, 우무의 기본 동작을 사용하면서도 용의 이미지 또한 살리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마료>에 사용된 우무의 기본 동작은 히자마즈쿠(跪), 다테루(立), 아와스테(合手), 쓰쿠(突), 오시아시(押足), 오도루(踊), 미루(見), 도부(飛), 요루(寄), 하시리유쿠(走行), 사스테(指手), 후무(踏) 등이다. 히자마즈쿠는 첫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동작이다. 그리고 다테루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 발뒤꿈치를 세우는 동작, 아와스테는 양팔을 벌렸다 가슴 앞으로 모으는 동작이다. 쓰쿠는 무릎을 직각으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 오시아시는 앞발을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 오도루는 점프하는 동작이다. 미루는 한쪽을 바라보는 동작, 도부는 다리를 높고 크게 벌려 점프하듯 걷는 것을 말한다. 요루는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이동하는 것이다. 하시리유쿠는 달리듯이 조금 빠르게 발을 옮기는 동작이다. 사스테는 한쪽으로 팔을 돌려 뻗는 동작, 후무는 발을 내딛어 밟는 동작이다. <고마료>에서 사



<고마료>의 소품

용한 무구는 은색 봉과 여의주이다. 은색봉은 고마가쿠 <나소리(納曾利)>에서 사용된 것으로, 고려적(高麗笛)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덴리대학의 <고마료>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간략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마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17) 이상의 <狛龍> 동작은 天理WEB動画 Joyous Sound(<https://www.tenrikyo.or.jp> (검색일: 2019. 02.07)에 의함.

18) 서정록, 『納曾利 퍼즐조각 찾기-나소리 무대도구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춤과 과학기술』 5-3,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09, pp.257~264 참조.

문헌에 기록된 연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마료>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형상을 한 조형물, 즉 고마가타로 기록에 의하면 무원들은 그것에 올라타 연행을 하였다. 그러나 덴리대학은 <고마료>의 재구성에 있어 이러한 조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마료>에서 용과 용마의 이미지는 그것의 외형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의미나 혹은 기능상 ‘용=용마’의 관계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형상에는 차이가 있어 시각적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고마료> 재구성에 있어 덴리대학에서 무게를 둔 것은 부연할 필요도 없이 용이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덴리대학의 <고마료>는 용의 형상을 한 의상에 무구로 여의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 기록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고마가타 위에 올라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는 용마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었다. 다쿠와 사토시에 의하면 <고마료>처럼 용마가 등장하는 것으로는 민속의 돗토리시(鳥取市) 가미아지노(上味野)의 초우제(初午祭) 외에도 아키타현(秋田県) 가즈노시(鹿角市) 하치만타이(八幡平) 오히루메무치(大日靈貴) 신사의 부가쿠(舞樂) 등이 있다고 한다.¹⁹⁾ 이 중, 가미아지노의 초우제²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초우(初午)란 2월 첫 번째 말의 날로, 이날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화재방지를 위한 ‘다-다-(ダーダー)’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때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분장을 하고 ‘다-다-’라고 외치며 마을을 순회하는데, 종려나무와 짚으로 만든 고마가타를 선두에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마가타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마료>와 마찬가지로 벽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쿠와 사토시는 그의 연구를 통

19) 田鍬智志, 앞의 글, pp.133~134.

20) 사진은 <http://shigeharublog.blog134.fc2.com/blog-entry-26.html>(검색일: 2023. 01. 03)에 의함

해 돗토리시의 초우제 등과 <고마료>와의 연관성을 논한 바 있다. 물론 이외에도 말이나 혹은 고마가타 등을 소재로 한 예능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아오모리현(靑森縣) 가미키타군(上北郡) 로쿠노헤초(六戸町)에는 가미요시다난부고마마이(上吉田南部駒舞)²¹⁾가 있다. 이것은 야생마를 포



上味野初午祭



上吉田南部駒舞

획하는 장면을 무용화한 것으로 벽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소재나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오늘날의 민속을 예로 들어 볼 때 악무 속 고마가타의 외형적 표현이나 표출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리대학의 <고마료>는 용마와 고마가타가 아닌 용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다.

사토 고지 교수에 의하면 <고마료>를 포함해 덴리대학 가가쿠부에서 전승이 단절된 여러 악곡들의 재구성 등을 시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연되지 못했던 곡을 공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21) 사진은 地域文化資産ポータル https://bunkashisan.ne.jp/bunkashisan/02_aomori/6975.html(검색일: 2023. 01. 03)에 의함

〈고마료〉의 경우, 문헌과 같이 고마가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히치리키의 연주 등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도 하였다. 사토 고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덴리대학의 이러한 방향성은 국립극장의 고악기 및 음악 복원 작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지선의 연구²²⁾에 의하면 국립극장은 1975년부터 다양한 고악기를 복원하고 이를 사용한 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복원에 있어서는 모든 악기의 악보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관악기 악보를 기준으로 선율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복원의 목적이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주를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덴리대학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더욱이 덴리대학 가가쿠부는 아마추어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으로, 전문가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훈초』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볼 때, 〈고마료〉의 가장 큰 특징 및 상징은 고마가타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 복원이나 재구성 등은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덴리대학의 〈고마료〉에서 고마가타의 문제는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 과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IV. 나오며

고구려계 악무의 복원 및 재구성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한 한국에 게도 뜻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형에 근접한 복원이나 재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마료〉를 포함해 효과적인 연구 및 작품의 재구성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

22) 이지선, 「일본의 고악기 및 음악 복원에 관한 고찰」, 『동양음악』30,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8, pp.199~228 참조.

자료의 충실한 강독 및 분석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대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수용이나 적용 작업 또한 필요하다. 문제는 원전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양한 분야와의 공동 연구 및 협업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의 악(樂)은 예술의 범주를 넘어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민속 등 모든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다양한 의견은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 가는데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고구려계 악무로 분류되고 있는 <고마료>는 <소호비>와 함께 궁중의 절기행사에서 연행되었으며, 벽사의 기능 및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교훈초』에 의하면 <고마료>는 고마가타에 올라 춤을 추었다고 한다. <고마료>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마가타이다. 고마가타는 조형의 말로 용마를 상징한다. 동아시아에서 용과 말은 하나의 계통으로 인식 되어 『마경초집언해』에는 용 → 비토 → 기린 → 말의 계보가 형성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역할 및 상징 등에 있어 ‘용=용마’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데, <고마료>에서 용마는 그것의 외형적 측면 및 공연 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덴리대학에서 재구성한 <고마료>는 2인무로 용의 형상을 본 뜬 의상에 무구로는 은색 봉과 여의주를 사용하고 있다. 춤내용은 고마가쿠의 기본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문제는 용과 용마의 둘 중, 용에 포인트를 맞추어 그것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반면 문헌에 보이는 고마가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훈초』에는 <고마료>가 고마가타에 올라 공연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것의 연행 형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 민속 예능 중, 돗토리시 가미아지노의 초오제 등에서는 고마가타를 연상시키는 연행 양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대에서의 고마가

타 사용은 충분히 가능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리대학에서는 〈교마료〉 재구성에 있어 고마가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덴리대학의 〈고마료〉 재구성은 여러 면에서 보완, 수정, 재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덴리대학 가가쿠부에서 전승이 단절된 악곡의 연주나 재구성, 복원 등을 시도하는 것은 연구가 아닌 지금까지 공연되지 못했던 악곡을 공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래되어 천년 넘게 전승되어 온 가가쿠의 역사성 및 의의 등을 생각할 때, 재구성 등에서는 공연의 가(可), 불(不) 만이 아닌 문헌 기록의 실제적 접근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확장된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고마료〉 재구성 작업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3년 4월 26일

논문 심사일 : 2023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5월 22일

참고문헌

『馬經抄集諺解』

『公事根源』

『龍鳴抄』

박태규, 「일본 고대의 한류와 그 특이성」, 『역사 속의 한류』, 역락, 2021.

서정록, 「納曾利 퍼즐조각 찾기—나소리 무대도구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춤과 과학기술』 5-3,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09.

이시영, 『한국마문화발달사』, 한국마사회, 1991.

이지선, 「일본의 고악기 및 음악 복원에 관한 고찰」, 『동양음악』 30,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8.

일연 저, 최호 역해,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1999.

現代思潮神社 編, 『延喜式』 2, 現代思潮神社, 2006.

神宮司庁, 『古事類苑』 34, 吉川弘文館, 1909.

田鍬智志, 「競馬節會幸行の舞楽〈蘇芳菲〉〈狛龍〉から因幡の麒麟獅子舞へ(1)」, 『日本伝統音楽研究』 17, 京都市立芸術大学日本伝統音楽研究センター, 2020.

林屋辰三郎 校注, 『教訓抄』, 岩波書店, 1973.

藤原宗忠 著, 笹川種郎 編, 『中右記』 2, 日本史籍保存会, 1916.

天理大学雅楽部定期公演 프로그램, 2014.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L>
IB_195666 (검색일: 2023. 01. 03)

www.kci.go.kr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rmda.kulib.kyoto-u.ac.jp>

(검색일: 2023. 01. 03)

地域文化資産ポータル https://bunkashisan.ne.jp/bunkashisan/02_

aomori/6975.html (검색일: 2023. 01. 03)

天理WEB動画Joyous Sound <https://www.tenrikyo.or.jp> (검색일: 2019.

02.07)

奈良国立博物館 <https://www.narahaku.go.jp/exhibition/>

special/200910_shosoin (검색일: 2023. 01.03)

<http://shigeharublog.blog134.fc2.com/blog-entry-26.html> (검색일

2023. 01. 03)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digital.archives.go.jp> (검

색일 2023. 01. 03)

Abstract

A study on Japanese court dance for the study of Korean ancient dance :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and current issues of the Japanese Goguryeo dance <Komaryo(狛龍)>

Taequ Park

This paper studied in the literature records and the current issues of dance reconstruction of <Komaryo>. According to 『Gyokunsho』, <Komaryo> danced on a 'Komagata'(shaped like a horse). This paper pays attention on 'Komagata' of <Komaryo>.

Komagata is a horse sculpture and symbolizes a divine being, swift dragon-horse. But <Komaryo> is emphasizing a swift dragon, not a horse, so it became an important point determining performance style. For instance, <Komaryo>, reconstructed by Tenri University, is a two-person dance, with dragon-shaped costumes and silver rods and the cintamani (如意珠) as prop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image of the dragon was embodied, the Komagata shown in the literature was not used at all. Accordingly, Tenri University's reconstruction of <Komaryo> requires supplementation, modification, and reconsideration in many ways. Tenri University's attempting to reconstruct works that have not been transmitted has the primary purpose, which performs musics that have not been performed so far, not research.

But I think, considering the historicity and significance of Gagaku(雅樂), which has been handed down from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www.kci.go.kr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pproaching of literature record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s. It expects that the <Komaryo> will be supplemented through more extensive research and soliciting opinions.

Key words

Goguryeo, Komaryo, Komagata, Komagaku, Bugaku